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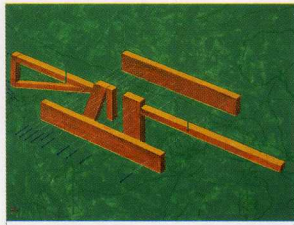
**이관우**

에이블 파인아트 뉴욕 갤러리 서울 9.1~15 전작을 재료로 인간의 정체성과 흔적,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어온 작가의 개인전이 뉴욕 첼시 본사와 서울지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재료의 특성과 조형적 요소, 그리고 작은 전각의 상호작용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천성명**

갤러리 스케이프 8.26~10.2 동시대 조각의 영역을 내러티브와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통해 연극적 무대로 확장한 작가가 3년 만에 여는 개인전. 회화 사진 문학 설치 연극 등 여러 영역을 조각적으로 풀어냈던 그는, 이번 개인전에서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펼쳐낸다.



**민성식**

두산갤러리 서울 9.1~10.6 작가는 개인전 《Two Faces》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온 풍경화 신작과 함께 뉴욕에서 레지던시 기간에 작업한 '훈련무기' 연작을 선보인다. 이 연작을 통해 무의식 중에 체득하게 되는 사회적·군사적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주제로 단진다.



**이광호**

조현화랑 부산 9.2~10.2 일상적인 소재의 형상 재현을 넘어 독창적 언어로 해석해온 작가는 개인전 《Touch》에서 최근 작업 《선인장》과 《풍경》 시리즈 28점을 소개한다. 대상의 내면과 자신의 내면을 교차시키며 사진적 그리기에 대한 작가의 끈질긴 탐구의 결과물이다.



**길에게 묻다**

갤러리 잔다리 9.29~10.30 현대미술의 변화하는 흐름 안에서 '회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적 의미의 지평을 모색하는 전시. 오용석 입자혁 홍지연은 현대 회화가 특정한 틀에 맞출 수 없을 만큼 혼성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오용석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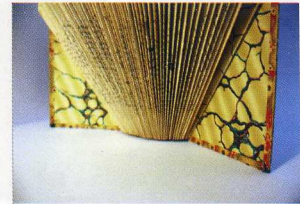
**에이젠슈타인 몽타주**

브레인팩토리 9.1~17 몽타주 이론을 모티프로 영상, 사운드, 요리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충돌을 통해 창조를 시도하는 협업 프로젝트. 서양미술사와 요리의 관계를 추적하며 인간의 생활과 문화를 반추한다. 비디오설치작가 이영호, 디제이 박민준, 요리사 백상준이 참여한다. 이영호 작



**장보윤**

갤러리 팩토리 9.20~10.15 사람이나 사물이 떠난 빈 곳에 남은 기억과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온 장보윤의 개인전 《밤에 익숙해지며》. 작가는 죽음이나 영혼을 담고 있는 사진의 특성에 사랑이나 존재의 의미를 추가해, 자신의 작업에 주목할 만한 요소를 첨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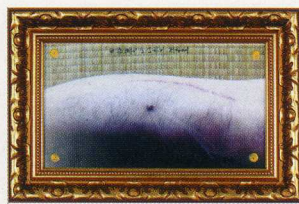
**신지영**

숨씨 9.9~30 북아트, 드로잉, 설치에 이르는 다양한 작업을 전개해온 작가의 개인전 《감상하는, 책-교감》. 버려지거나 폼하되어 쓸모없는 책, 대량 소비사회에서 버려진 사물로서의 '책'은 작가의 손에 의해 새로운 감상의 대상, '감상하는 책'으로 태어난다.



**정지현**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9.16~10.15 정지현의 개인전 《빛나간 자리》는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간극과 간격을 화두로 다룬다. '일상을 더욱 사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화두로 작가가 지난 1년 동안 수집하고 조합한 결과를 영상, 설치, 그림으로 선보인다.



**김용익**

아트 스페이스 폴 9.6~10.14 《무통(無痛) 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는 1970년대 개념주의 전위미술가로 활동하며 개념, 지각, 체험을 화두로 던져온 작가의 글 모음집 《나는 왜 미술을 하는가》의 출판을 기념하는 전시. 책의 마지막 장을 실제 작업과 함께 설치한다.



**스위스디자인: 크리스+크로스**

고려대박물관 기획전시실 9.5~30, 부산디자인센터 4층 10.10~11.10 주한 스위스대사관이 스위스 예술위원회 프로헬메티아와 고려대학교박물관 및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과와 함께 스위스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시. 물통, 감자칼, 등산 지팡이, 에스프레소 기계, 기차역 시계 등 스위스 디자인을 대표하는 400점 이상의 물품을 일곱 개의 나무 상자 안에 디스플레이한다. 전시품부터 전시 상자 설계까지 모두 '하나의 통합된 디자인'인 셈이다. 디자인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성공적인 협업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 150년 동안 스위스 디자인이 일구어낸 독창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